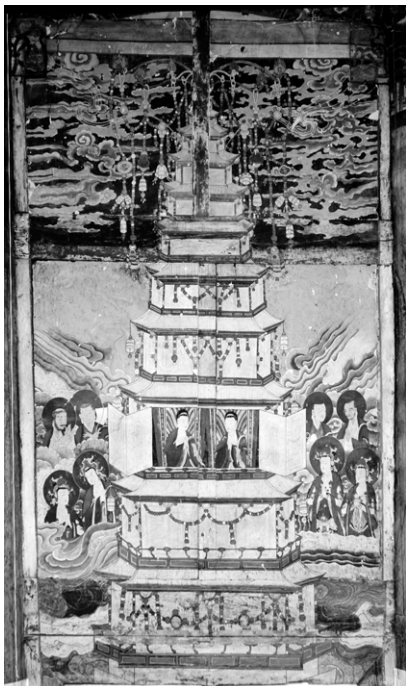


# 韓·日 합심으로 되살린 통도사 다보탑벽화



복원작업을 마친 후 공개된 통도사 영산전 다보탑 벽화.

## 국내최초 전통아교 사용 균열·훼손 복원

<법화경>에 나오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여래를 표현한 유일한 회화작품인 통도사 영산전 다보탑 벽화가 한·일(韓日) '합심'의 힘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복원작업은 2004년 일본 강고지문화재연구소의 한 관계자가 통도사를 방문해 다보탑 벽화의 복원을 제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05년부터 시공 계획을 세우고 본격 돌입한 한국과 일본의 공동 수복작업은 올해 10월 8일 완료됐다.

1714년 중건한 통도사 영산전 다보탑 벽화는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았으나, 300년이 지나면서 낡고 금이 가 수시로 안료가 떨어지는 등 그림 아래 부분 손상이 심해 문제가 됐다. 다보여래에 관련된 성보문화재는 회화작품인 영산전 벽화를 제외하면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뿐이어서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나다. 훼손이 심한 벽화 보존을 위해 시행된 수

복공사는 국내 최초로 전통아교를 사용했다. 아교는 벽화의 결손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안착시키는 재료이다. 그동안 화학아교로 진행된 국내 벽화 보존 작업은 색이 변하고 수명이 오래가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일본 강고지문화재연구소의 전통아교 제작기술을 지원 받은 복구팀은 전통아교를 만들어 벽화가 떨어지려는 부분의 안쪽에 주사기를 통해 발랐다. 전체적으로 전통아교를 10회 이상 입혀, 떨어지려던 채색층이 제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색상이 눈에 띄게 밝아졌다. 미세한 균열과 박락 부분도 깨끗이 정리됐고 훼손이 심했던 아래 부분도 말끔히 정리됐다. 드디어 300년 전 다보탑 벽화가 한·일 화합의 힘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벽화는 높이 4m, 폭 2.3m의 크기로 영산전 안 서쪽 벽을 가득 채우고 있다. 벽화의

중심에는 풍경과 구슬장식을 매단 구름탑이 우뚝 서 있고 탑의 3층 내부에는 <벽화경> '견보탑품'에 나오는 석가여래와 다보여래 두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있다.

탑 주변에는 보살상과 제자상이 시립(侍立)해 있다. 탑문이 열린 내부로 2여래(二來)가 병좌했으며 탑 둘레는 운룡 영락과 풍경장엄이 펼쳐져 있고, 하늘에는 오색구름이 휘날려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 신용철 학예실장은 "영산전 벽화의 사례로 문화재보존수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통도사는 영산전 서쪽 외벽화의 1차 보존 처리 외에 영산전 내부 포벽화도 3년 간 연차적으로 보존 수복할 계획이다. 또한 11월 1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재보존수복에 사용하고 있는 아교의 특성에 대해-아교를 만들고 아교를 알아보자'라는 제목으로 특강한다. (055)382-1001

하성미 기자



## 봉화 축서사 보탑성전 낙성식

### 적멸보궁 백일 기도 봉행도

봉화 축서사가 11월 10일 오전 11시 보탑성전 낙성식 및 제불보살 점안 적멸보궁 100일 기도도 봉행한다.

축서사에 건립된 보탑성전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탑을 위한 전각, 사리탑은 기단의 길이 7.3m, 높이 15.5m의 5층 아(亞)자형 한옥식 석탑이다. 사리탑에는 2003년 8월 축서사 폐불탱화가 보물 제1379호로 지정되었을 때 폐

불 복장실에서 발견한 부처님 적(赤)사리 2과를 봉안했다. 이와 함께 이삼순 보살이 미얀마 사야도 바탄다 카이티 와라 사리박물관에서 기증받은 석가모니 진신 정골사리(불두사리) 108과와 응철사리 및 부처님 십대제자 사리를 같이 봉안했다.

한편 같은 날 보탑성전 낙성 기념 제1회 적멸보궁 백일기도를 입재한다. 보탑성전에서 무어 스님을 모시고 4분정간 기도도 봉행하게 된다. (054)672-7579 김지연 기자

## “달라이라마 명상법 배워보세요”

### 한국티벳센터 제1기 명상아카데미 개원

달라이 라마가 추천한 한국인에게 맞는 명상법은 무엇일까? 까말라쉴라(Kamalaśīla, 蓮華戒, 740-795)의 <수습차제(修習次第)>를 바탕으로 한 명상법이다. 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한국티벳센터(주지 소남)는 달라이 라마가 추천한 명상법을 가르치는 제1기 명상아카데미를 개원한다.

11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열릴 명상 아카데미는 '고통을 줄이고 행복으로 이끌어 주는 명상의 첫 단계'에 대해 설명한다.

<수습차제>는 인도의 고승 까말라쉴라가 전한 대승의 주옥같은 법어들을 모은 책 <공림

(Gom Rim)>을 번역한 것이다. 상·중·하 세 권으로 구성된 <수습차제>는 단문으로 정리돼 읽기 쉽다.

광대한 대승의 심요(心要)를 빠짐없이 가려 모으고, 수행의 차이를 정연하게 정리해 대승 보살의 수행의 바른 길을 여범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특징. 티벳에서 저술된 모든 수행 지침서들의 어머니라 불리는 귀중한 책이다.

소남 스님은 "수습차제 상·중·하 3편 가운데 중권으로 명상보도를 이끌 계획"이라며 "보리심을 위한 '8단계 수행 단계'를 설명하는 이 명상법을 통해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051)243-2468

하성미 기자

## 수미산 아미타도량 '원효센터' 문 연다

### 11월 2일 개관식 개최

왜 깨달아야 하는지 근본 뿌리부터 논리적으로 알고자 하는 수행자들을 위해 원효센터를 건립한 공파 스님(원효센터 주지)은 "수행을 하기 위해 가야하는 곳, 수행자들이 모여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는 장소"라고 건립 취지를 설명한다.

부산 수미산 아미타도량 원효센터가 11월 2일 오후 8시에 개관식을 연다. 원효센터는 <대승기신론 해동소·별기>만을 연구하고 논리적인 설명으로 심층연구를 하는 공간이다.

공파 스님은 앞으로 원효 스님에 대한 자료를 수집, 연구 번역해 책으로 출판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포럼을 열고 <대승기신론>을 배운 회원들이 수행에 대해 연구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학문을 위해 <대승기신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고 나면 수행을 해야 하죠. 저희 원효센터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정음하게 가꾸도록 정음법 시간을 마련하여



현대적 디자인으로 꾸며진 원효센터는 <대승기신론> 연구와 더불어 수행포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수행에 이끌고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을 배운 분들은 학문으로 그 공부 마무리 안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공파 스님은 원효센터를 개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세련된 갤러리 같은 모습으로 꾸며진 '원효센터'를 공파 스님은 "고정적인 절의 개념에서 벗어나 현대인과 젊은이들을 위해 새롭게 구성한 건물이다"

며 "세상사는 법을 알고 인과에 의한 철저한 믿음, 이것이 불교이니 젊은이들이 처음부터 원인을 잘 심도록 도와주고 좌표를 잡아 주길 원해서 이렇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원효센터는 현재 67기 회원을 모집 중이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강의가 진행된다. (051)611-3808

하성미 기자

## 안동 동인사 첫삽

### 서용 스님 기공식서 법문

안동 동인사(주지 운봉)가 10월 21일 건립기공식을 열었다.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원효종 대구교구 종무원장 서용 스님(사진)은 "보살의 수행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육바라밀이고 그 첫째가 보시바라밀이니 즉, 재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법을 베풀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위안과 용기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함없이 베풀면서도 조건을 내세우거나 보답을 바라지 않아야 하며, 베풀었다는 생각마저도 갖지 말아야 한다"고 법문했다.

또한 "오늘 기공식에 참석하신 사부대중께서는 보살의 육바라밀행을 성취기 위한 수행처가 되는 훌륭한 가람을 세워 깨달음의 대풍년 추수를 거두자"고 강조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 팔관회, 불교수호대법회로

해마다 부산 광안리를 정면한 연등으로 뒤덮이며 불교문화를 알리던 팔관회가 '불교수호대법회'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11월 6일 오후 2시 부산 남천동 KBS홀에서 열리는 '불교수호대법회'는 고산 스님 초청 팔관수계법회, 소구소망을 발원하는 촛불서원제, 국제민안발원 영산대재, 불자 연예인 전원주 초청 불교 수행

체험담 발표 등으로 꾸며진다. 또 대동한마당 '다함께 하나 되어!'를 통해 불교 수호에 대한 의지를 다진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상) 측은 "팔계 수계를 통해 안으로는 자성하고 밖으로는 불자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불교 수호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자 한다"고 개최 동기를 밝혔다. (051)867-0501

하성미 기자

# 공 고

단체명 : 사단법인 한국불교 단체 총 연합회

등록허가처 : 문화관광부

법인설립허가번호 : 문광부 제141호 · 허가일자 : 1994년 2월 3일

### (사)한불총 연합회

- 1987. 11. 23 : 호국불교운동 총연합회 (불교18계 중단 총무원장으로 결성)
- 1988. 6. 10 : 불자국회의원당선자96명 당선축하법회(전경련회관)
- 9. 10 : 한국불교도 총연합회로 개칭
- 1990. 12. 12 : 제1대 이의윤회장 취임(동국대학교 교수)
- 1991. 1. 28 : 제2대 이병호회장 취임(변호사)
- 1992. 1. 4 : 남북통일 기원 대법회 (한국불교 중단협의회와 공동주관)
- 1993. 1. 27 : 제3대 김영호(변호사)회장 취임
- 1993. 1. 27 : 전국신행단체 연합대법회(전국50여 신행단체 참석)
- 1994. 2. 3 :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개칭 문화체육부 허가 제38호 사단법인 인가
- 1994. 3. 10 :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인가 축하법회(1,500명 참석)
- 1999. 7. : 제4대 김용래회장 취임(전 서울시장)
- 1999. 12. 17 : 제4대 문홍주박사 (임기 잔여기간)
- 2000.11. 4 : 제5대 김기석회장 취임(전 청와대 비서실장 역임)
- 2002. 4. 27 : 제6대 이의윤회장 취임(김기석회장, 국회의원당선)
- 2005. 2. 25 : 제7대 심완석회장 취임(건설회사, 대표이사)
- 2007. 7. 10 : 제8대 강호문 대표이사장 선출 (대한불교불이종 총무원장)
- 2007. 9. 29 : 사무실(210평) 부산으로 이전개원식 및 현판식
- 9. 29 : 제11호 나라태풍 제주도 수재민 돕기 백미 1,000포 전달식

### 목적 및 취지

본회는 종파를 초월, 불교종단과 전국불자 신행단체 총 연합회로서 종단 간에 종무행정의 긴밀한 협력과 동체 단합으로 퇴보된 불교관을 의식개혁으로 전환하여 생활불교를 정착시켜, 미래불교 흥포를 실현, 깨달음의 사회화를 통해 불교정토건설을 파사현정토로 실현하여 부처님의 동체대비로 한국불교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 국민 대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 성숙한 나눔의 새로운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종교인들의 대중적인 공동 실천 운동을 사회 속에 확대 발전함을 목적과 그 취지로 한다.

천지 사이의 형이상 형이하의 문제로 연구를 거듭하여 유신하지 않을 것이 없으므로 학술의 유신, 정치의 유신, 그 외 각 방면에서 유신을 외치는 소리가 천지에 가득하므로 이미 유신을 하였거나, 지금 하고 있거나, 장차 해야 할 일들이 헤아릴 수 없도록 중첩하고 있는 현실 속에 여타 종단 대표, 불교신행단체 대표의 덕목을 총 집결하여 '받아서 되돌려 주는 불교'를 무언 이타행하여 종단은 물론 승려의 자행선덕을 온 천하에 흥포, 생활불교 정착으로 대중불교 활성화를 위함이니, 독자 생존의 길은 험하고 외롭고 하천합니다. 여타 종단과 사회단체 대표님의 동참을 바랍니다.

### 재등록 종단명

- ◆ 대한불교 불이종
- ◆ 대한불교 무량종
- ◆ 대한불교 법인종
- ◆ 대한불교 원조계종
- ◆ 대한불교 서산사명종
- ◆ 대한불교 목조선종
- ◆ 정법대승불교조계종
- ◆ 해동불교 입제조계종
- ◆ 세계불교 세신종
- ◆ 대한불교 삼보조계종
- ◆ 한국불교 미륵천왕종
- ◆ 대한불교 정토종
- ◆ 한국불교 원효종
- 외 21계 종단 -

### 정관개정사유

사단법인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제1대 - 제7대 회장은 재가불자로서 단체를 운영하였는 바 종단 및 재가단체 연합이 어려움을 직시하고 제8대 회장부터는 종단대표 및 신행단체 대표로 연합함에 있어 정관 일부 개정이 불가피 하였음을 양해 바라오며, 정관 개정에 의한 내용변경으로 이에 따른 법인단체등록증 재교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단체등록증 재교부 요청

2007년 7월 10일, 이전 본회에 등록된 종단 단체 및 불자신행사회단체는 아래와 같이 재교부를 바랍니다.

※ 재교부 기간 : 2007년 10월 25일부터 2007년 11월 25일까지

위 기간 내 한국불교단체 등록증을 재교부 받지 않는 본회에 등록된(110개단체) 종단단체 및 불자신행사회단체는 본회 취지 및 목적에 뜻이 없어 탈퇴함을 인정하고 국제청 및 관할 세무서, (한남, 연말기부금 정산 혜택에서 제외)행정기관에 본회 명칭사용 정지 신청을 요청할 것임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2007년 10월 22일

### 사단법인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대표이사

※ 행정업무사무실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03-2번지 중후2빌딩 5층  
TEL : (051)465-3255

